東亞日報

小作人運動

團結과訓練의必要

朝鮮의小作人이 在來에 地主에게 無理한壓迫과虐待를 當하야온것은 世人의共認하는바이며 또그無理한迫害로因하야 一般小作人의生活이 悲慘을極하나니 朝鮮人口의 大部分을 占領하는 此小作人의生活이 暗憺함으로因하야 朝鮮의文化가幼稚하고 그向上이遲々함이 亦世人의共知하는바이니 一面에 朝鮮의文化를向上하고 朝鮮人의生活을確保하려면 不可不 此小作問題에對하야 徹底한解決을 告치아니치못할지며 他面에 世界大勢의推向과 人知發達의結果는 또한自然히 此朝鮮小作人을促하야 그權利를擁護하고 그地位를確保함에 奮起케할것이라 如此히觀察하면 小作人問題는 一面에 在하야는 朝鮮의文化를向上하는 根本問題로 必히解決하여야할 『理想的』部面을有하는同時에 他面에在하야는 人知發達과經濟的自覺에基하야 來하는『必然的』性質을帶한다할수도잇스니 朝鮮의地主와爲政家는 此點에深切한考慮를加하야 그問題解決에最善을盡함이可하도다

朝鮮의小作運動이 漸次로熾烈한氣勢를揭하고 複雜한問題 더욱히 今年에 그問題가紛糾를加할兆朕을呈하는中 新年劈頭에 吾人의耳目을聳動하는 地主對小作人의問題는 昆列全南順天郡에서起하얏스니『小作人大會』『小作會期成會』『小作人蹶起』等의類々한地方來報는 只 此를表示함이로다 이제그紛諍의大略을論하건대 (一)小作料의減少 (二)地稅公課金의負擔拒絶 (三)斗量의公平 (四)小作料運搬의制限 (五)無償勞働의反對等이니 在來의朝鮮人地主가그小作人을 視하되 맛치中古歐洲巴의 農奴와如히하야 그에各種雜役을 無代로加하야온것은事實이라 此에對하야反抗의聲을擧함은 吾人의觀察에依하면極히穩當한줄노認定하며 小作料運搬의制限과 斗量의公平은勿論地稅公課金을地主가負擔할것을力說함은 地主가一言의抗辯을提起할 何方의理由가無한 當然한主張이며 更히小作料의減少와如한것도 在來의그苛酷한程度에鑑하야 地主가맛당히容認하여야할줄노認定할수밧게업스니 此小作人의提起한 各種條件을 一言以評하면 現代의社會組織과 經濟組織을 그대로認定하고 그組織下에서 多少의改良을 要求하는 極히穩當한主張이라하겟도다 元來 理論上으로論之하면 土地는自然物이라 何人의私有物도아니며 또그自然物은 萬人의生存에 必要한 自然物이라 此를私有하야 그私有權에依하야 實際에勞力을加하는 生產者의勞働을搾取함은 決코理에合當하다하지못할지며 더라 此를推延하면 現代의社會組織과法律制度까지라도 否定할수밧게업스나 그러나 朝鮮의小作人은 아즉 그와갓흔極端에觀하지아니하고 比較的實現하기容易한 改良的方面에 그力을注하는터인즉地主와爲政家는 特히此點을考慮하야 그穩健한主張을 拒否하는 頑冥을取치아니함이 可하도다

그러나 吾人이 이제小作人에게 바라고자하는것은 그團結의鞏固와 訓練의必要이니 此는一種의戰爭이며 鬪爭이라 權利를擁護하기爲한 鬪爭이며 生存을確保코자하는戰爭이라 戰爭에 엇지團結이업시 勝利를期待할수잇스며 또訓練이업시 엇지그鞏固한團結을希望할수잇스리오 이럼으로 吾人은 朝鮮의小作人運動이 第一次에起하야 失敗하면 更히第二次에起하고 第二次에 失敗하면 第三次에蹶起하야 이와가치 失敗를積하는同時에 그指導者는 聰明을得하고 그從衛者는 牢乎한決心을持하라 此所謂百戰에老練한精兵이라 如此한後에 비로소 그所期의目的을達할지니 朝鮮小作人運動의第一戰에立한者는 몬저此方面에 周密한 考慮를加함이必要할가하노라

朝鮮의土地兼併과其對策 (卄)

鮮于全

二、土地兼併防止策(續)

(一)家產制度(續)

現在 各地에散在한金融組合을 家產制度補充機關으로利用하자면 現體의內容에就하야 多少改良補足할點이有한것은勿論이어니와 現體의金融組合은 單히 小農民의便利를圖하는目的上으로觀하야서도 多少改良할點이有하다 現在 各地에散在한金融組合은 最初 專히 中農以下小農民의 必要로하는小額의農業金融을 通하야 農村經濟의發達을計圖코자하는趣旨下에서設立된者이나 大正七年六月金融組合規則을改正하야 農民以外의者도組合에加入하야 此를利用케하얏슴으로 金融組合設立最初의趣旨는今日에至하야多少變化됨이有하다 即現行의改正規則의要點을擧하진대 組合員의資格은 從來農民에限하얏든것을 此를擴張하야 商工業者外一般人에게도其組合加入의資格을與하는同時에 特히小商工業者를組合員으로하는都市金融組合의設立을認定하야 小規模商工業者의必要資金의融通을 圖하려하얏스며 又從來 各組合間에資金의過不足을調順할中央機關이無하얏슴뿐만아니라 組合에對한監督指導機關을單히官廳에서만委任하얏슴으로 組合의活動을促進키不能한點이少치아니하얏다는理由下에서 改正規則은 各組合을會員으로하는 金融組合聯合會를組織하되 其設置區域은各道를標準하얏스며 그리하야 道金融組合聯合會는 同會員인各組合에對하야 必要資金을貸出하며 又는預金을取扱케하는等이改正의主要部分인바 此의結果로 現存한金融組合을專히 都市小規模의商工業者로組織되야 商工業의必要資金의融通을目的하는 都市金融組合과 地方農民으로組織되야 農民의必要資金의融通을目的하는地方金融組合의二種에別할수有하며 前者는都市商工業者를相手로하느니만치其業務의範圍가廣하며 後者는地方農民을相手로하느니만치 其業務의範圍와貸出의限度가前者에比하야制限되엿도다 即金融組合業務에關한 監督規程에規定된各種金融組合의組合員에對한貸付及手形割引限度를見할진대 都市金融組合에在하야는 組合員一人에對한貸付及手形割引限度를千圓에 地方金融組合에在하야는 信用貸付限度額을 二百圓에限定하야 貸付의限度가兩者相히大異하며 其貸付金使用目的은 兩者에對하야

一 開墾 排水 灌漑其他土地改良資金
二 自作用土地購入資金
三 住宅以外農業又는工業用建物의新築 改築 移築 修繕又는購入에必要한資金
四 店舖設備에必要한資金
五 前各號用途에充키爲하야 又는自作用土地를擔保로한舊債償還에必要한資金으로

適當한不動產及朝鮮產業上必要한貨物 國債證券又는朝鮮總督이認可한有價證券을擔保로提供할境遇에는擔保價額의十分의八以內五百圓外지貸付함을得함

更히貸付期限에就하야如何하나하면 信用貸付에對하야는 都市金融組合에在하야는六個月以內 地方金融組合에在하야는一個年以內로定하얏스되 相當한理由가有한境遇에限하야 其期間을更新함을得한다하얏스며 又不動產 動產擔保貸付에對하야는 十五個年以內의年賦償還又는五個年以內의定期償還方法에依키로하되 此償還方法에依하는貸付資金은 朝鮮殖產銀行又는聯合金融組合으로부터借入하야此에充한다하얏다

죽음의길 (39)

쳉키위치原作 閔牛步譯

수 ― 리 (三)

李春植은이『보로위나』移民地에서 아모것도업고 아모무서운것도업섯다 달는사람이 戰慄恐怖하는大森林도 結局그에게는 食物과衣服을供給하는 조흔倉庫엿다 여러사람들이 다恐怖한생각에눌니며 思考하는 함을일엇슬때에 그는『라사쓰』州에서온者들을全部麾下에집어늣코 스사로指揮하엿다

여러사람은 新綱가씃난뒤에 그가森林에對하야怒한것을보고 畢竟무슨外路을버리라고 생각하엿다

太陽은西便으로가려안젓다 솔풀끗헤는 붉은놀이둘니며 빗이漸々집허가고暮景의南風은솔々불어왓다 그때李春植은銃을메고 森林속으로들어갓다

아조밤이된때에 偶然히여러사람들은 캄々한森林中에서 큰金色의별도갓고또는해도지의첫빗가치도보이는것을發見하엿다 그러자그것은非常한速度로 漸々자라서 今方鮮血과가튼 섯빌건빗이 四方으로퍼졋다

『아々!火災다!』 『山불이다山불이다!』하는 부르지짐이 露營사이에서일어낫다

불에놀난 새떼들은 꾀々빽々하면서 四方에서날너왓다 家畜들은悽凉하게울고개사람들은 불속에나 차이지아니할가하야 이리저리로 徨히돌어단엿스나 强烈한南風은 불길을 달든곳으로 돌나바렷다 그러한中에좀사이뜬곳에는 第二의불은벌이번져이고 또第三의불은벌이 번져엿다 居末幾에이두벌은 最初의불길과하대合하야 이제는廣大한面積을덥고후룽々々호도독々々하고우ー쏴ー하면서 불쐿이 빙々돌엇다 불쐿은마치 洪水처럼흘너서 그물가치얼킨乾燥한恋草를타고돌며 모든枝葉을그슬넛다 불붓흔나무가지는 바람에날녀서 불틔가 飛鳥가치날넛다

엇더한나무는 大砲와가튼爆音을發하며쐬여지고 붉은[illegible]과가튼불길은 기름氣만흔 松葉이 毛氈가치捲縮된의를 늠々기며단일케 푸ー々々하는소리 가지석기는소리 불쐿의나붓기는소리等이 鳥獸의우짓는소리와한테和하야 天地에가득하엿다 空中에솟은듯흔나무들은 마치火柱와가치되야 우줄々々흔들니고 翠草를타고도는긴불은 놀나운氣勢로發展되야 그칠바를아지못하엿다 하놀도 타는듯이붉어지고 森林의四圍는白晝와가치밝어졋다 森林은一面의 火海가되엿스며 불쐿은怨鬼의狂奔함과가치 그向하는곳마다 『死』와『破壞』의赤氣를뿜어 모든物件을掃蕩하엿다

煙氣와火熱과 나무타는臭氣는 空中에充滿하엿다 南風의德을입어 移民들에게는 아모危險도업기는하엿스나 그네들은悚慴함을못익이며 서로呼應하면서 慌忙히돌어단엿다 그때에不意에 그悽慘한火光中으로부터 한사람이나타나니 그는『수리』李春植이엇다

그의얼골은 煙氣에걸어싯검은中에도峻嚴한相이나타낫스며 여러사람이 모야들어 그를차고둘너선즉그는從容히 그銃에기대고서서이러케말하엿다

『여보게 자네들인케는 독괴질할걱정은업네 只今불을차질너노왓스닛가來日만되거든 자네들所願대로 쌘々한地面을나누어가지게그랴』

그는 또瑪琍에게 갓가히오면서 말을부쳣다

『너는 世上업서도 내차지일다 森林을살너발인것은내닛가 다 나는森林보다도 무서운사람이다』

瑪琍는 李春植의눈에 山火가 반작々々反射되는것을보고 별넝々々떨엇다 그에게는 이男子가非常히무섭게보엿다 瑪琍는이때에비로소 그愛人의宋道令이멀고먼梨坪村에잇는것을 하느님의感謝하엿다

二十世紀 青年讀本

●滿天下青年諸君의게 特히此書를推薦하노라

本書는青年時代의緊切한要求에應하야模範的新案을案出한것인바豫備的青年의人格修養에涵蓄하도록 가장平易하며明確하야理論的이아니요迷路의彷徨하는青年의處世捷徑으로實行躬踐的의眞髓이다 光明한生活、眞理의生活을憧憬하는青年은絕好한良師友요至極無上한好侶物될은勿論이니將來의新文明을開拓할青年아鞏固한立場에서高潔한理想으로人類生活에가장幸福스러운新文明에建設者되는青年아見하라、讀하라處世에初程이오青年의使命에關鍵이다

―(本書內容의目次)―

第一章 青年의前進編
第二章 青年의立志編
第三章 青年의處世編
第四章 青年의志氣編
第五章 青年의生活編
第六章 青年의情育編
第七章 青年의希望編
第八章 青年의活動編
第九章 青年의努力編
第十章 青年의煩悶編
第十一章 青年의實踐編
第十二章 青年의責任編
第十三章 青年의自覺編
第十四章 青年의修養編
第十五章 青年의自制編
第十六章 青年의成功編
第十七章 青年의幸福編
第十八章 青年의道德編
第十九章 青年의行路編

附錄
▲華盛頓日常生活의座右銘
▲福澤翁의修身要領
▲東西格言의選抄

[出刊된지月餘에於焉間賣盡되려하는現下出版界에奇績的行實인此書를보라]

美製全一冊 定價金八十錢 (先金郵稅十一錢) (引換郵稅十八錢)

●絕大한修養으로偉大한人格을得할青年은讀하라

偉人成功의經路

―(本書內容의目次)―

第一章 ●貧寒으로起하야一厘도助力을不請하고奮鬪로無形의資產을삼아英國第一의書籍商된쿠워리치氏
第二章 ●失敗는所得으로하고四十五歲까지奮鬪하야年俸十萬弗(二十萬圓)의課長으로된하ー口젠氏
第三章 ●新聞配達夫로부터着實한奮鬪를繼續하야一千萬圓의大富豪된도무손氏

定價金四十五錢

普通學校卒業成功立身法

在學生諸君아!! 卒業生諸君아!!

―(本書內容의目次)―

定價金四十五錢

現代思想各論

現代人에는現代의思想!! 特히우리朝鮮에는現代의思想!!

―(本書內容의重要目次)―

●社會問題라함은무엇이냐
●過激思想이라함은엇더한思想이냐
●無政府主義라함은무엇이냐
●民主主義라함은무엇이냐

定價金四十五錢

●萬種新舊書籍을無漏完備하옵고都賣小賣함 ●代金引換함

發行所 京城府鍾路三丁目 振替京城八七三四 太華書館

賠償問題와 佛計劃

佛首相의 計劃에 依하면 獨逸의 鑛山工場에는 干涉을 加치 안이하고 佛國은 「루얼」地方과 獨逸間에 在한 稅關制度를 撤廢한 後 賠償金은 佛國側稅關에 依하야 此를 收領할 意思이라더라 (巴里九日發)

佛「루얼」占領反對否認

＝佛國外務省은 米國이 何等의 形式으로 「루얼」地方占領에 反對하얏다는 華府來報를 否認하고 尙且米國國務卿 「휴-쓰」氏의 國際委員會設立案의 傳達도 否認하얏더라 (巴里九日發)

佛軍大部隊移動

＝獨逸來報에 依하면 大部隊의 佛兵은 「루얼」地方으로 向하야 移動中이며 「메이안쓰」에서 三十八個列車가 「루얼」地方으로 向하야 發車하얏다는 報道가 有한바 既爲中間驛에 到着한 佛軍數個聯隊의 幹部는 「듀이스벨그」에 到着하야 兵舍를 準備한다는바 本日同地에 到着할 豫定이며 且佛軍의 重砲隊及工兵隊는 「노이쓰」附近을 渡하야 「듀이스벨그」에 到着하얏다는 報道가 有하더라 (倫敦九日發)

獨逸은 伊白行動에 注目

＝獨逸政府는 佛伊의 活動程度와 伊白兩國의 佛國을 援助하는 程度에 依하야는 巴里羅馬及「브락셀」의 駐箚大使를 召喚할는지도 未知하더라 (伯林十日發)

루얼占領과 經濟界의 影響

＝華府來報에 依하면 佛國의 「루얼」地方占領은 全歐洲의 財政及經濟에 影響이 多大할 터임으로 米國의 公文은 直接佛國政府에 提出될 터이라고 非公式으로 斷言하얏더라 (倫敦十日發)

獨逸人民의 大憤慨

對抗手段講究中

「루얼」及其他의 地帶에 對하야 佛國이 制裁的行動을 取코저 하는 結果 獨逸全國에 亘하야 憤慨한 情이 漲溢하야 各種의 對抗手段이 講究되며 又伯林來電에 依하면 「엣센」商業會議所는 佛國이 其制裁手段을 取하면 獨逸은 佛國에 對하야 講和條約의 義務를 履行할 必要가 無케 되리라는 事를 聲明하기로 決議하얏더라 (倫敦九日電)

「엣센」人民의 興奮

＝「엣센」人民은 興奮이 極度에 達하야 國家主義者等은 愛國歌를 高唱하며 市內를 巡廻하는 中이라더라 (「엣센」十日發)

世界經濟會召集

上院議員 「캇퍼-」氏는 世界經濟會議召集決議案을 提出하얏다더라 (華盛頓九日發)

印度赤化具體案

印度共産黨代表의 提携

勞農露國이 印度赤化의 計劃을 抱持한 것은 事實이며 因하야 「위즈네쎈쓰키」氏를 印度에 駐在케 한바 第三「인터나쇼날」會議 (昨年十一月莫斯科에서 開催되얏던) 에 出席하얏든 印度의 共産黨代表는 向者에 印度赤化案을 携하고 歸來하얏스나 早晩間右赤化案은 印度國民前에 發表될 터인바 該案의 內容은 農業工業의 國有直接國稅의 撤廢及勞農制度를 採用코저 하는 것이더라 (東京電)

米國駐軍退獨

米國務卿 「휴-쓰」氏는 獨逸에 駐屯한 米軍의 撤退를 命하얏더라 (華府十日發)

馬克又復激落

獨逸馬克時勢는 英一磅四萬五千八百八十馬克 米一弗九千五百七十五馬克 日本一圓四千二百二十八馬克으로 更히 激落하얏더라 (倫敦十日發)

參戰審理法案

「앙고라」國民議會는 千九百十四年에 在한 土耳其의 參戰責任者를 審理할 事를 規定한 法律案을 討議하기로 決定하얏더라 (君府十日發)

레닌病祟再發

某所着電에 依하면 露國執政官 「레닌」氏는 病으로 因하야 靜養中이던바 三日以來危篤에 陷하얏다더라 (莫斯科電)

張總理統一計劃

張總理는 九日閣議의 結果雲南, 廣東, 廣西, 湖南, 四川, 貴州의 各首領에게 共同하야 憲法을 制定하고 南北統一을 圖하라는 通電을 發하는 同時에 孫文, 岑春煊, 唐紹儀氏에게 (廣東) 廣西의 調定을 依賴하얏더라 (北京十日發)

租借地回收提案

衆議案對政府鞭韃

北京報道에 依하면 五日衆議院에 左의 重要案이 提出되얏더라 (上海九日發)

一、來三月의 旅順, 大連 還附에 就하야 必要한 處置를 取하도록 政府에 請願할 案

二、華府會議의 決定에 基하야 廣州灣의 還附를 求하도록 政府에 要求할 案

三、上海에 在한 會審衙門의 撤廢에 就하야 各國의 同意를 求할 案

戰爭勃發

廣東方面에

廣東廣州方面에 戰爭이 勃發하얏다는 報道는 上海廣東間의 商業去來에 影響을 及하야 各汽船은 乘客外에는 廣東에 行하는 貨物이 無하며 狀態임으로 急用貨物은 香港으로 逆附하야 輸送되는바 上海에서 廣東으로 行하는 貨物은 八日外지 六日間이나 停止되야 目下逃暦年末에 處한 中國商人의 打擊은 不少하다더라 (上海九日發)

長慶陷落

＝九日長慶이 陷落하얏슴으로 聯合軍은 旣히 長慶에 入城하얏다더라 (上海十日發)

陳氏逃走

＝陳炯明氏는 荊州로 逃走하엿더라 (廣東十日發)

增稅用途制限

外交團은 來十七日부터 增徵할 關稅收入을 外債整理의 方針以外의 他用途에는 利用치 안이할 事를 警告하리라더라 (北京十日發)

政變風說의 內面

齋藤氏有力

加藤首相의 健康狀態는 各種策士의 陰謀的空想을 誘發이 有한 中 更히 樞府의 上奏事件으로 因하야 益々策士의 暗中飛躍을 盛行케 하는바 最近顯著한 것은 第二中間內閣의 計劃인데 右는 極히 巧妙한 論理로 出發하야 第一은 不遠에 加藤內閣이 倒壞하더라도 此는 政策上失敗가 안이고 首相의 病이 其原因인즉 第二中間內閣이 成立될 餘地가 有하다는 者이며 第二는 中間內閣의 繼續은 輿論의 共鳴을 不得하더라도 政友會는 內部의 結合이 完全치 못하고 憲政會는 勢力이 不振하니 中間內閣을 成立케 할 可能性이 有하다는 者인데 第一에 自薦自讀的으로 蠢動하는 것은 後藤新平子, 又一方에는 二十三日議會의 再開에 際하야 加藤首相의 施政方針演說에 對하야 貴衆兩院이 共히 一週間以上의 質問戰을 開始하면 首相의 健康狀態가 此激務에 堪當할 與否가 問題될 터이니 其時에는 結局臨時總理를 置치 안이하면 不可能할 터인바 席次에 依하면 內田外相이 代理首相이 될 터이나 如斯히 하야서는 到底히 兩院의 紛料를 緩和치 못할 터임으로 水野內相或은 [illegible]

郵便調印問題

意見交換結果

[illegible]

對中貿易比較

昨年十二月中

大藏省發表 (大正十一年十二月中의 對中貿易은 輸出이 二千二百六十六萬五千圓인바 前年度의 同月에 比하야 八十三萬圓의 增加이며 輸入은 一千九百二十三萬九千圓이 [illegible]

中國政情

過去一年回顧 (五)

西南諸問題

[illegible]

罷業

[illegible]

負擔輕減運動

農業者의 結束

農業者의 公課負擔輕減에 關하야는 十二年度豫算面에서도 商業工業者의 營業稅는 千九百萬圓으로 輕減하얏는데 農業者에게는 此等事가 無하고 改正等의 意圖도 見치 못하얏슴으로 各地의 農民은 今期議會에 此의 輕減運動을 起할 터이라더라 (東電)

營業稅輕減額

約二割七分强

政府에서 今議會에 提出할 營業稅法中改正法律案에 依하면 各營業稅負擔의 輕減은 平均二割七分强이라더라 (東京電)

督軍更迭

江西督軍陳光遠氏는 北伐軍에 破하야 失脚하고 蔡成勳氏가 此에 代하야 督軍이 되얏고 河南은 [illegible]

反宗教運動

從來基督教는 中國思想界에 偉大한 勢力이 有하든바 最近에 中國新人의 社會主義와 科學的研究의 結果 [illegible]

公債支辨事業

減少內容

[illegible]

露, 東鐵奪還劃策

張作霖氏對策講究

東三省護路軍總司令朱慶瀾氏의 報告에 依하면 露國은 武力으로써 東支鐵道의 奪還을 計劃하야 滿洲里一帶에 約六七萬의 兵을 集中하며 [illegible] 張作霖氏는 此에 對하야 秘密裡에 對抗策을 講究中이라더라 (國境情報)

鮮銀移管建議

滿洲調查會

滿洲經濟調查會에서는 關東廳의 諮問案인 滿蒙緊急救濟策에 對하야 [illegible]

獨佛國交斷絶乎

白佛兩國駐在獨大使召還

獨逸政府는 佛國及白耳義駐在自國大使에게 召還命令을 發하얏는데 아직 正式으로 國交의 斷絶을 意味함은 아니더라 (伯林九日發)

海外渡航者數

西伯利方面이 最多

朝鮮에서 海外에 渡航하는 者는 每年平均三千五百乃至四千의 程度로 大正十一年度는 (十一年度는 調查未了) 渡航狀況을 下에 附한바 [illegible]

京城府新事業

目下豫算編成中

京城府에서는 大正十二年度新規事業其他에 對하야 目下豫算編成中인바 [illegible]

資金集散槪算

一月中

朝鮮銀行調查에 依한 一月中의 朝鮮內資金集散槪算을 聞하건대 [illegible]

客月新設會社

二十五社

朝鮮銀行調查에 依한 客十二月中에 朝鮮內에 本店을 置한 新設會社數는 二十五社인바 [illegible]

保管貨物增加

[illegible]

公設市場賣額

三分一의 激增

十二月中의 京城府內四公設市場의 賣額은 九萬七千三百三十八圓十六錢으로 [illegible]

檢定試驗擧行

二月一日부터

總督府檢定試驗을 來月一日부터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內에서 擧行할 터이라는바 [illegible]

市外電話通話狀況

京城郵便局의 管轄下인 市外電話 [illegible]

鮮銀發行稅漸減

[illegible]

鮮銀理事後任

[illegible]

京城道廳增築案

[illegible]

總督府會議一件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消息

[illegible]

謹告

過般本社專務取締役愼九範氏가 滿洲露領方面在留同胞의 狀況을 視察키 爲하야 該地에 近二個月間旅行할 時에 在留同胞의 過大한 歡迎과 百般의 周旋으로 外援助하심에 對하야 感謝함을 不勝하오며 諸位의 愛護하심으로 無事히 歸國하엿기 紙面으로 謝意를 表하나이다

東亞日報社

商況

[illegible]

株式市場

[illegible]

大阪三品

十一日前場

[illegible]

大阪株式

十一日前場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illegible]

後場短期高騰

大阪은 崛落

[illegible]

京電株主總會

[illegible]

仁川期米市場

[illegible]

京株期賣買價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綿絲布標準價

[illegible]

外國經濟電報

[illegible]

日本金利及市況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星洋行

一號型 二號型 三號型 四號型 五號型 六號型 七號型 八號型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強保勢

今朝天候는風强天變에各地氣配는다强하야便으로報하엿더라

로攻勢를取하니稍高二十二圓六十錢으로前止되엿고北後場을다라氣配一高一低하더니前場大阪十錢에始하야七十三錢外지高潮氣配亦强하야硬하야活動함을試하엿스나軟軍의防戰이有力함을止보다僅히十二文高한二十一圓後二十七錢으로初付하다

◆第五節 當中兩限은不成에先 九十二錢에止됨 大阪地八九節이五十錢이라 三十六丁이더라

◇盛炎의 準備로……분주한 어름뜨기……◇ 한강의 어름은 지금이 한참이라 각 어름회사에서는 어름을 뜨기에 눈코뜰사이가 업는데 매일 수백명의 인부를 드리어 일천오백 톤(噸) 이상의 어름을 떠내인다 한다 (사진은 어름뜨기에 밧분 일군들)

旣히 二百五十八人

답지하는 민립대학발긔인

민립대학발긔인이 각처로 답지한다함은 본보에 련일보도한바어니와 그 수효가 발서 이백오십여인의 다수에 달하얏다 하며 각디방으로브터 발긔인을 선발하야 보낸은 물론이요 자진하야 개인으로 발긔인되기를 승락하는 이 도착지 안는다더라

◇平北宣川郡 李泳賀 金聖範 車均益 金商說
◇忠北槐山郡 金台應 柳文柱 金相赫 李敦益
◇慶北永川郡 李哲洛 權泰鉉 李暎欽 安定洙
◇金北茂朱郡 高漢根 吳在根 李憲恒

獨立團과

관병이합력하야 마적을토벌하여

평안북도대안 집안현(平北對岸輯安縣)령내(嶺內)에 근거를둔 마적 약팔십명과 독립단과조선 단데와충돌하야 독립단과조선인이 다수히피상하얏는바 중국(中國) 관헌약오십명은 독립단 단데를 응원하야 마적을 토벌하얏다더라(모처정보)

官兵의 應援隊

륙구를향하야출발

분흥(文興)대안약칠리되는 배청자(大淸溝)에서 지난달십팔일에 중국(中國)관헌 륙십명과 산포(山砲)와 기관총과 삼십오정을가진 마적 약백륙십명과 충돌하야 중국관헌두 귀환할힘도업시 패귀하얏슴으로 이급보를접하고 곳 봉텬(奉天)에서는 응원대오십여명을 륙구(通溝)에 향하야 파송하얏다더라(모처정보)

朝鮮產品을 쓰기로

소비조합발긔 인천청년유지가

근일각디에서 우리의 산업진흥과경제의 중요한 문데곳 우리의 사활문데를 의하야 우리는 우리에게서나는것과 우리의손으로 지은것으로써 먹고입고 쓰는것이가장 긴하다하야 여러가지방법으로써 운동을하며 구테뎍으로 실행하자는 말이 만흔데 인천에서는 지난칠일밤 「경제조사긔관의필요」라는 본지사설을 보고 감동된 모모청년은 과연공급긔관의필요를 인뎡하고 이문데에 대하야 연구중이든바 지난구일 은당디 청년이 백여인으로 조직되여 의친의 목뎍으로 금전식리를하는 식산계(殖産稧)에서 일간 개회될 뎡긔총회준비위원회로 모임을 열긔로 하는데 가월부에서 시작되여 필경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여 일반 수용자의 공급긔관으로 각디에 우리물품을 조사하고 조선부여하며 수용하기로하고 조선산품소비조합(朝鮮產品消費組合)을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그계로 널니조합원을 모집하야 불원간 구데뎍으로 실행하기로하고 이에 대한 모든준비는 실행위원칠인에게 위임하기로 하는동시에 실행위원은 다음과가치 선뎡하고 일간창립총회를하기로하엿더라(인천)

金相圭 金壽玉 金容奎 鄭寅植 金平永 李盛園 李洸錫

中毒者二十名

말매자열명 안성의「모루히네」

경긔도안성군(京畿道安城郡)에는「모루히네」중독자와 밀매자가 매우만하서 사회에 해독을 쉬치는일이 만타함은 여러번 보도한바어니와 이제 지난해 일년동안의통계를 듯건데 모루히네중독자로서 공한서에서 검거하야처벌밧은자가 대략삼십명이요 그 모루히네를 몰래파는자가 잡히여처벌당한자가 대략십명이요 그자들이 벌금으로밧친돈이 대략천원을 된다하며 이밧게 절도범으로 검거된자 구십여명과 도박범으로 잡힌자 구십여명 가운데 그의 반수이상이 모루히네 상습자이라하니 조고마한 안셩군내에「모루히네」로써 몸과집을망치는자는 아는자외에도 얼마나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명하야두고잇는 다수한 중독자를 망라하야보면 실로 놀날만한 통계를 이루겟다하며 이번에도 검거되야 처벌당한자는 아래와갓다더라(안성)

安城郡邑內石井里 車舜益(三六) (密賣犯罰金二十圓)
安城邑內場基里 崔相五(三二) (中毒者拘留十五日)
住所未定 朴相哲(三三) (中毒及窃盜犯檢事局에送致)

小作料運搬費를

동텩회사에청구 순텬군작인들이

동양텩식회사순텬수납소(東拓順天收納所)에서는 대청사년가지는 십리이상의도조운반비를 일일히 주엇는데 무슨까닭인지 대청오년이후로는 운반비를주지 아니함으로 소작인들은 불평이 만터니 이번에동군쌍암면(雙岩面)에잇는그회사소작인중 강영태(姜永泰)박춘섭(朴春涉)량인은 소작인대표로지난칠년동안의 도조운반비를 내이라고 그회사 목포출장소(東拓木浦出張所)에 청구하얏다더라(순텬)

氷上運動大會

평양대동강에서 본사지국주최로

평양의 대동강(大同江)은 조선의 명승(名勝)이오 평양의 보배이라 여름이면 은결가치 잔잔한 물결에 적은배를 가벼엽게 띄운후 맑은 노래를 흙개하야 한업는 정신의 쾌락을주며 겨울이면 령텩의 운동터가된다 이즈음 평양 대동강에는 매일수백의 청년들이 스켓트를 놀며 어름우의 운동을하는데 본사평양지국(本社平壤支局)에서는 이긔회를 리용하야 청년의 장쾌한 긔상을 장려하기 위하야 오는이십일 오전시 대동강상에서 빙상운동대회(氷上運動大會)를 주최하기로 하얏는데 평양의청년은 학생이나 교사나 회사원(會社員)이나 누구를 물론하고 스케트를타는 사람이면 참가를허락하며 참가코자하는사람은 오는십팔일까지 본사평양지국으로 가입금(加入金)오십전을첨부하야 청원하면 그만이오 평양에서 조선사람으로 빙상운동은 처음인데 평양청년의 활긔를 도읍기위하야 각방면에서 만히동정하야주기를 바란다더라(평양)

人面獸心

죽이고강간 그리고도강도질

세상에는 악한도잇다 분적기보에 행하는 살인강간강도를 일시에 현읍비군현주진남포명석뎡소천송태랑(本籍岐阜縣揖斐郡現住鎭南浦明石町小川松太郞)(三一)이란자는 무슨볼일이잇서々 봉텬방면에갓다가 오는중 구일밤 차안에서 이십세내외의 쏫가튼 일본녀자 한사람을 맛나서 그녀자가 려행에서투른것을 보고 일부러 친절한톄하며 여러가지이약이를 하야주다가 밤열시에 긔차가안동현에와서 다으매 밤이 너무깁헛스니 안동현에서내려서 시가구경이나 하고가는것이 엇더냐고 꾀히여 결국그녀자와함의 내리어 안동현륙도구(六道溝)엇더한 재목뎜근처에서 별안간강간을 하고자 함으로 그녀자는 소래를질느며 항거하얏더니 그자는 분김에몸에진니엇는 단도로목을찔너 죽여놋코 짐승가튼욕심을 채운후 그녀자의 옷을벗기고 휴대품과 현금삼십원을 강탈하야가지고 안동현 뎡거장대합실에서 밤을 새이고그이튼날아츰 경성으로 오는차로 도망하려다가 아츰여덟시경에 긔차가신의주와 석하(石下) 뎡거장 사이를 지나갈때에 차안을경계하든 신의주경찰서김쳐윤(金頒洙) 형사가그자의거동이 수상한것을보고 취조하다가 톄포하얏다더라

道詵庵에 四名强盜

주지를협박하고칠원강탈 동대문서에서는극력활동

재작십일 오전네시경에 동소문(東小門)밧 우이동(牛耳洞)에 잇는 도선암(道詵庵)에 강도네명이 각々대량 한자반가량이되는칼을가지고 돌연히 침입하야 주지(主持)를 협박하고 현금칠원이십전을 강탈하야가지고 어대로 도망하엿는데 이급보를접한 안소관 동대문서에서는 크게놀내여 즉시다수한형사가 현장에 출장하야 사실을 조사하는동시에 대활동을개시하엿스나 범인은 아즉 톄포치못하엿다더라

陵參奉問題로

평남유림의알투

평안남도유림련합회(平安南道儒林聯合會)에서 작년삼월경에 릉참봉(陵參奉)데명을더 느리어 평안남도텽에 청원을하얏는데 이래여러달동안 평안남도텽에서 싱각을하던바 릉참봉이라하는것은 아모것도업시 뎨사(祭祀)에서춘추로제사(祭祀)에 나한차례식 참례할뿐이오 그외에 아모할일이업는공직(空職)이라 현재한사람식이라도넘ㅅ하지마는 아모원업는 유림회에서는중병을맛허가지고 각군유림회에통첩을하야 한사람을천거하라하얏다 유림회에서는 참봉뎜만하고 유림회에 대하야 운동은 극히맹렬하얏던 안이라 괴괴한내막이 만허잇다한다 그리되야 모다멀여섯명을 평남도텽에 보고하얏는데이선거에 락데된 사람이나 후보자는 가장 공명정대한 량반놓은평남도텽에 대하야 이번 선거는 가장불공평하다는등 혹은 자긔가 뎨원참봉자격이 잇다는등 자긔는참봉을 한번하면 죽어도여한이업겟다는등 탄원서가평남도텽에 산갓치쌋엿다 이에대하야평남도텽 학무과댱(學務課長)송퇴(松澤)씨는말하되 아모리를평을발한다 할지라도 결뎡하는권한은 여기잇스니가 일간결뎡하야발표할터이며 이번새로히 텁시를주는곳은 긔자묘(箕子廟)과 숭령뎐(崇靈殿)과 숭인뎐(崇仁殿)의각한사람식과 동명왕릉(東明王陵)에는본래잇든사람이며 뎐(殿)에되얏슴으로두사람인데 합하야 다섯명이새로 될터이라고하더라(평양)

朝鮮及朝鮮人의煩悶 十

負債의 奴隷를 免하자

번민이잇서도말할수업는번민 남의빗쓰는사람이되지를마라

民友會 薛泰熙氏談

조선과 조선인의번민에 대하야 민우회(民友會)의 설태희(薛泰熙)씨는 말하되「우리의번민과 고통이무엇인지는 말보다도 더 밝은것이아니겟습니가 번민하는 리유는 아즉고사하고 우리에게번민을 가지게하는 그비들도 다 아는바가아니겟슴니가 그러나 어느것이 고통이오 무엇이번민이라고 말할필요도업습니다 구태여 말하려한들 그 만흔번민과 가진고통을 엇더케말할수잇겟습니가

만흔번민과

새에사모치고 가슴에 가득한고통과번민도 시원하게 자유롭게 말할수업는 처디에잇서서 무엇이 고통이아니고 번민이아니겟습니가 조곰만 케먹내로나가려하여도 모든핍박이 압뒤에서의엄하고 조곰만케멋께로 움측여도 가진세력이 손발을얼거놋는 우리의살림에 어느것인들 번민이아니겟습니가 자유로운 사상을발표치못하니 번민이외다 우리의일운을 마음대로 가르치지 못하니 고통이외다 사람된특권을 쓰지못하니 번민이외다 게다가여린목숨을 부지하기에

먹고입음을

거리조차우리의뜻대로 계획할수도 업스며 우리가계획하지도아니하는것이 더욱번민이외다 이모든 고통과 번민으로 맛츰내정신이 시들고 육톄가 지치어서 권부한건강조차날로 쇠하여가고 자유로움을 거름이 배로막히어 감니다그려 우리의앞을 돌아보고 남의살림을처다볼때마다 더욱우리와 가치약하던 남들도 다ㅣ 앗다운동

빌어먹는

남의빗(負債)을 세앗기지안으로 우리의목숨을 앗기위하야우리의 목숨을 잘부지하여야 하겟슴니다 안을 엇기위하야 우리의충실한 로위안을 어들만한힘을하고 위로생각함니다 오직우리가 스々로 력(力)으로써대항할필요도 업스며 할필요도업스며 쓸아서폭력(暴力)이 하야는우리가구래여화협(和協)을 하는이러케 생각합니다 우리가고 는것이 고통이오번민이외다 나 수아비들이 우리뎡네가운데 잇다더구나 이에따다서 춤추는허가치 놀리는일이 더욱번민이외 立)인지하는작난감으로 원승이 權運動)인지 내정독립(內政獨 고고롱됩니다 참정권운동(參政 우리들을 놀리는일이 더욱분하

체설음에

가슴을 태우는 남어지에한숨이나옵니다 이러케 서놀뛰는것을 생각하니 번민의 산에서 춤추고자유로운 범판에 우리는늘

남의것을

쓰는사람사는 사람이됨진대 다른사람은 만드는사람 마는사람이되야 우리는 영원하게 빗진사람으로 파리하게되고 약하게될것이외다 이런말것이외다 이러케되면 우리는자면 하쓰레기통으로 돌아다니게되 고남의맛을 씨서주는 종이되고 말것이외다 이소나 말의살림을 벗어나고 종노릇을 말려고할진대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여야 하게 부지하여가도록 하여야 하겟습니다 여긔대하야 큰얘다릉 이업고 몸소행하기에 날낸이업고는 온갓것이다 룹거품이외다 우리의 량식을우리가 만들고우리의 목숨은 우리의솜씨로딕々 배를누르게 말어야 하겟습니다

재다름이

김고뜨거워야 하겟습니다 이러케되여야 우리의번민이 업서질날이 잇슬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번민을 업시할방법과 수단이 여러가지라하겟지요마는가장긴요한것이 이며가장적절한 방법은이「남의빗쓰는사람이 되지말라」는것이라고 나는크게소리를 치려합니다」(쯧)

辛氏는 檢事局에

십일취조를마치고

조선청년련합회순회강연단이지난달이십팔일에의주북하중에서 강연하다가중지를당하고 연사신태악(辛泰嶽)씨는신의주경찰서에서 취조중이라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십일에 취조를맛치고 일건서류와가치 신씨는 신의주디방법원검사국으로압송하얏더라(신의주)

今世의 太公望

백륙십삼세로인 백발이세번이나

봉텬성집안현(奉天省輯安縣)에 거주하는 완국당(阮國棟)이라하는로인은 전청건륭(前淸乾隆)삼십삼년에 산동성봉래현(山東省蓬萊縣)에서 출생하야 여덟살때에 만주로왓다는데 지금나희가 일백륙십삼세로 몸이 매우건강하며 백발이 세번이 되든해에 백발이 모다빠저바리고 다시검은머리가낫다가 백사십오세에 이르러 또다시털니빠지고 검은털이나더니 지금은 헌털로변하얏스며 항상사방으로 놀너다니기를질겨한다더라(봉텬)

避難所에 火災

네명이중경상 손해는대략수천원

원산구세관구(元山救世軍)안에잇는아라사피난민수용소에서 삼호실동편에서구일오전칠시오분에 불이나서 삼십호실한채를태이고 소방조의 진력으로진화되엿는데 손해는 대략수삼천원이오 네사람의중경상까지 잇섯더라(원산)

經書까지 發刊키로

불교포교사대회

지난팔일부터 시내각황사(覺皇寺)에서열닌불교포교사대회(佛敎布敎師大會)는십일오후에 맛치엇는데 이십여명의 포교사가 출석하야 각디방포교당의 현재상황을듯고 또장래 발뎐에대한 의견을듯고 포교의종지(宗旨)와 포교의의식(儀式)과포교의방법을통일할것과 포교하는데 쓸 경을발간하는 일을협의하얏다더라

兒戱로 火災

재작십일오후두시오분경에 시내익선동백이십번디(益善洞)에사는십삼세 윤경운(尹敬雲)의집에서 돌연히불이나서 집웅조금태우고 즉시진화되엿는데손해는이원가량이요 원인은 아해들이 석냥을가지고 첨아끗에서 작란을하다가 그와가치불이난것이라더라

蓬萊町에도 小火

작일 오전한시삼분경에시내봉래뎡삼뎡목삼십삼번디 류직렬(劉直烈)(貳)의집 부엌아궁이에서 불이나서 집웅을태우고동오십분경에야 진화하얏는데 손해는대략십원가량이요불난원인은 아즉알수업더라

塵桶이라하는 生活難

처위를못이겨쓰레기통도적 량심의가책으로죽고자한자

시내락원동이십일번디(樂園洞)에사는 손병규(孫炳圭)(四一)는 방금 종로서에 톄포되야 취조를 밧는중인데 그는작일오전 여섯시경에그부근에잇는 엇던사람의 쓰레기통을 도적하다가 이와가치 톄포된것이라하며 그는 톄포당시에 량심상가책을바닷든지 품에잇든 단도로자살코자 하엿스나 경관의 케지로그만 죽지못하엿스며 그가도적질을 하게되얏든 원인은 요사이일긔가칩고 돈은업서서 그쓰레기통을 도적하야 팔아먹고커하다가 그와가치 톄포된것이라더라

無錢取食하고

경찰서에잡혀취조

시내사직동 일백삼십번디(社稷洞)에사는백창흠(白昌欽)(三二)은방금 종로서에톄포되야 취조를밧는중인데 이제 그내용을들은즉 그는재작십일 오후여달시경에 돈한푼도업시 시내종로삼뎡목 일백십오번디에잇는 중국료리뎜 복해헌지뎜(福海軒支店)에자긔의친구와 기생을다리고가서 먹고마시며 질탕히놀다가 회계삼십구원을내여스나 필경은돈벌터이업서주인과말썽을하다가 돈업시음식먹은죄로그와가치종로서에톄포된것이라더라

童話演劇會

텬도교소년회에서는 오는십사일 오후륙시부터 경운동텬도교당에서 다음과가치 동화극(童話劇)을한다는데 출연은 전부소년회의남녀회원이오 흥미가 만흐리라더라

「朝鮮童話(鍾王寗傳)」(二幕) 「사랑의선물」所載「한비테의죽음」 獨立戰爭哀話「마리의奇蹟」(二幕)

農監代에 作人代表

황해도봉산에서

황해도봉산군 서종면문정리(黃海道鳳山郡西鍾面文井里) 권백회동징을감독하든 농감지모(池某)는그간농감을고...

暴風雪警報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에서발표한바를 드른즉조선전부 연안에 풍설이심할터이라더라

온도비교 (攝氏)

昨年昨日(正午)零下 四·八
今年昨日(正午)零下 四·四
昨冬最低 零下 一五·三

大氣豫報

日出 上午七時四十四分
日入 下午五時一九分
雪晴 盈小 自十一日午後十二時 至十二日午後十二時
攝氏同日前六時零下 十五·〇

휴지롱

▲경남진주에서 사회풍긔를 교정하고 해독을업시하기위하야「스트라익」단이라는것이 생기엇다함은 휴지롱에한번 소개한일이잇는데 ▲이번에는 그반대로「스트라익」단의행동은 남의자유를 속박함이라하야「카ー분」단이라는 것이 생기엇다나 ▲그디방사람들은 미구에이두단의충돌이잇스리라하야 개우흥미를가지고 고대하며 경찰당국에서는 공연히머리를 알는모양이라고 ▲날이치우니가 변소의더러운것이 모다얼어서 집々마다변소가더러워 못견듸겟다는 말이만히들리는데 시내보다도 문밧각동리는 더욱 심한모양 ▲치우니가 인부들도 어렵겟지만는 세금은 뚝갓치바다가고 문밧기러고 소제를등한히한다는 부령유성파의불공평이 아닐는지

모임

▲자치회강연회 금십이일하오칠시 종로청년회관에서 다음과가치강연
朝鮮經濟現狀과生活狀態 李敦化

▲서울청년회강연회 금일하오칠시 텬도교당에서 다음과가치강연(입장료보통이십전학생반액)
우리의前途는오즉自作自給 洪淳英
經濟現狀과婦人의責任
無產階級의解放 張彪
權利의自由 新婦의눈집과우리의覺悟 金泰

▲이번김포군수(金浦郡守)로부임하는부이석씨와련천군수(漣川郡守)로부임하는허헌량씨는모다경성에잇고

▲보통학교졸업생회에서는 금일오후일곱시에 시내명월관에서 친목회를 열터인바 회비삼원은 당석지참이요

련락차저가오

요사이 종로경찰서에서는 엇던청년 수명을 톄포하고 비밀리에 취조중인데 그는각방면에서 련락을하든청년인바 차々조사를진행한결과...(사미원)

德國染料景品當籤番號廣告

景品引換期間 自大正十一年十二月十一日 至同十二年二月十日

景品引換場所 染料買入하신商店에申込하시와景品引換하시오 (但滿期以後는無効)

一等 二等 三等 四等 五等 六等 七等 八等 九等 十等

二二二一一一〇〇〇〇二一一一〇〇〇二一一〇〇二一〇二一〇二〇一〇〇
八五〇五二〇四二〇五七八五一六三〇二七〇五〇五三三二〇一四〇二三七
四五一七六一四六〇三六七八六七二一一三〇九四二二九四一二六〇八九七
〇五三七五九六四六五一七〇七七九六二六五一四四二八一五二二四八九八
二一一一一一〇〇〇 二一一一〇〇〇二一一一〇〇二一〇 一〇二〇一一一
八六〇六二〇五二一 七九六二八三〇四八二六〇六三五 一二八〇六九九
七二八〇八九〇八二 二一六一二五四三四一七七四九三 九五二三八二五
八〇四〇五七三一五 七四八六四八九三三五八八四九八 五〇四二一三八
一二二一一一〇〇〇 二二一一〇〇〇二一一〇〇二一〇 一〇二〇一二
八六三六二一六三一 八一七二八四一四八二八二六四五 六四八五九四
一二二〇九二八四三 四二二七二一五三七二〇九五九五 〇四四二七一
三九一九八七六八一 三六三五六一八八一五二〇三二七 一二一二五七
一二二一一一〇〇〇 二二一一〇〇〇二一一〇〇二二〇 一〇 〇二
八六二七四一六三一 八三七二八四一四八二八四七一九 六四 七三
二三四二一三九八五 四〇五九六二六八七三五二四五四 一九 〇七
七二四七九七三九五 五八六一六七八一四七三四五九九 三三 六四
二二一一一〇〇〇 二二一一〇〇〇二一一〇〇二二一 一〇 一二
六三八四一八三一 九三七二九五一八八三八四九三〇 七六 八八
四五九四九二九六 一二六九二〇九一八〇七八四一六 三一 六六
二九九六一一〇三 七九一六〇四八〇九五二二四一八 五二 九九
二二一一一一〇〇〇 二二一一〇〇〇二一一〇〇二二一 一〇 二
七三九四二九四一 九四八三九五二八九四九五八三二 八七 〇
五三五九三五〇七 五〇六三九〇九七二八五〇六五二 一六 五
七五二九二八八九 〇〇二六九六一七一五〇五一六 九二 一
二二二一一一〇〇〇 〇二一一一〇〇二二一一一〇 二二 一〇 二
七五〇五二九四一 六六八五〇五三九一五〇五 四三 六八 四
七二〇三六六一八 八三七三八三三四三一〇三 六〇 六七 一
八六七六四七八九 七一六一三六五五一六四九 五〇 一四 六

殘番號全部로

獨逸國 레바일메루 레바일메루 染料製造會社

朝鮮代理店 德國顏料廠 京城府太平通二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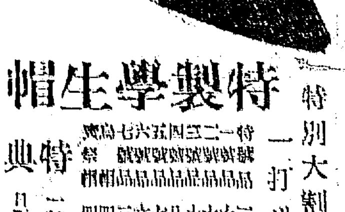
消痞紫金丹

九轉靈砂藥房 主 李鎬廷

諸般種症에有効確實한名藥은

됴고약 趙膏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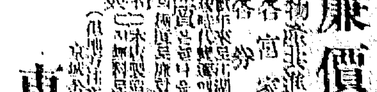
本舖 京城府禮智洞 藥種貿易商 天一藥房 到處에分賣店이有함



特製學生帽

特別大割引提供 一打에附 特典

東西洋帽子商店



廉價大宣傳

物產奬進會賞牌受領 各官家御用 各學校御用達

東一靴店 主 金永根

創作 幻戲 (五〇) 稻香作

영철이 배우영의 집대문을 들어스랴할때에 마참 하인하나이 나아오는것과 마조첫다 영철은 힘잇게 똑똑서서 위엄잇게 하인을 바라보며

「저 아씨 게신가?」하엿다

그 하인은 심술스럽게 무례한 태도로 눈을딱 부릅뜨고 아래우를 훌훌터보더니

「무어요?」하고 다시 처다본다

영철은 화가 벌컥나고 고이한 생각이 나지만은 그대로 꾹참고 서서

「저 아씨게서?」하엿다 그하인은 다시 심통스러운 소리로

「잠간만 기다리세요 드러가보고 나오게요」하고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간다

영철은 우습고도 기가 막히엿다 그러나 억지로 참고 밧갓헤서 왓다갓다하며 나오기만 기달니엿다

조곰잇다가 계집하인 한아가 나오더니 영철을보고 녀성스러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방님뵈 오라고 하셧세요?」한다 영철은 아모소리업시 고개만 꺽々하엿다 계집하인은 말하기가 밧그러운듯이 싱긋웃더니

「여해주무세요 좀 기다리셔야 할걸요」

하고 영철에게 거리서々일어날 뻔까지 기다리라는듯이 바라본다 영철은 속마음으로 목홍별 비려먹을 소리를 다하는군 하는 생각이 나며 열이 벌컥나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하고 엄연한 목소리로 말을하엿다

계집하인은 조금 얼々하여

「글세요 이러나실때까지…」하고 채말을 못맛칠으로 영철은 소리를 빽질너

「무엇야 드러가 이러나시라고도 못해?」하더니

「가만잇거라 내가 들어가잡어 일이 컬더이니」하고 압사랑 중문을 지나 뒤 랑으로 통한 쇼부리 진골목을 돌아 우영의 누어잇는 사랑마당에 들어섯다

우영은 어쾌저녁에 혜숙을 보낸 뒤에 여태까지 그의 마음는 혜숙이보다 더ㅣ어엽부고 더ㅣ잘생긴 녀자가 얼마든지 잇슬터인데 혜숙이란 녀자하나를 위하여 그모든 녀성의 사랑은 단념해 바려야할리야 잇나!

우영은 혜숙을 세상에 드문 [illegible] 으로 보기에는 또한 결함이 잇섯스며 아니라 그의피는 넘어만 이엿다 그의 [illegible] 핫다 그의 상을 고원(高遠)하게 하엿다 우영이 이모든 생각을 하고 자리속에 누어 담배연기를 후ㅣ 불을때에 그 담배연기는 요령한 자식을 가진 미인이 되여 [illegible] 춤추는듯하엿다 이때 영철은 마루우에 올너서 문을 확여러 젓드렷다

그러고 「우영군」하고 불으는 목소리는 무쇠소리갓치 무거웁고 강하엿다 우영의 마음은 그만 쇠붕치로 마진듯이 실신(失神)할 만큼 아모 감각이 업서젓다 그러나 겨우 지우슴을 지우며

「아! 이게 왼일인가?」하고 겨우 말궁치를 다이고 이러나는 힘에 영철은 우영의 피로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긔 온것은 비가 말하기 전에 자네가 발서 알녀이지!?」그리고 한거름 갓가히 나서며 고 [illegible] 는 주먹을 여지로 참으면서 [illegible] 거름 갓가히 나섯다 우영은 두려움을 참지 못하야 얼굴빗이 푸르락 누르락 하야 안 [illegible] 저잇다

安州商民大會 日本商人排斥

安州城內直輸入商日本人藤村恒三久田茂壽의兩商店은從來三千圓爲限으로各朝鮮人商店과商品을去來(延取引)하야온데同商店은從來의此慣例를不顧하고其期間을二十日間으로短縮하야今月一日부터施行하것다함으로一般市民은川本人直輸入商이市上의慣例를無視하고一方의擅意로發與코저함은現金取引以上의苦痛이될뿐안이라安州에商業協議所가有함을不拘하고何等協議도업시非協同行動을取함은不可하다하야金濟榕外市民七十餘人이今月二日에商民大會를開催하고左와如한決議를行하얏더라

一、本會員은一致團結하야安州日本人直輸入商組合을排斥할事

一、本會員은加盟金十圓式納入할事

一、本會員中何人이던지日本人直輸入商組合員商店에서商品을買入할時는本會에서除名하고會員에게去來를斷絶할事

一、本會團結의事實을仲介組合에通告하고前記直輸入商組合의物品을一切仲介치안케할事

一、本會에서直輸入株式會社를設立하기爲하야株金을募集할事 (平壤)

平壤貿易概況 一個年千二百萬

大正十一年度平壤通關貿易統計는輸移出二百十五萬四千九百六十三圓輸移入千三十七萬八千二百三十三圓合計一千二百五十二萬三千百九十七圓인대此를大正十年度統計에比較하면輸移出額은十七萬六千二百二十三圓輸移入額은九十九萬六千三百三十九圓合計百十七萬四千五百六十二圓이增加되야約一割七分의超過를示하얏스며更히此를上半期下半期에區分한즉大正十一年度上半期에는輸移出百二萬二千九百三十六圓輸移入五百四十萬四千五百四十六圓合計六百四十二萬七千四百八十三圓下半期에는輸移出百十三萬二千二十七圓輸移入四百九十七萬三千六百八十七圓合計六百十萬五千七百十四圓의數字를示하얏더라(平壤)

禁酒貯蓄會

義州郡古津面樂淸洞及樂元洞에서는同里內의李一貞諸氏의發起로禁酒貯蓄會를組織하고新年부터着々實行中이라더라(新義州)

仁川貿易概況

仁川稅關調査에依한客年十二月中當港貿易額은輸移出合計五百五十六萬七千五百二十四圓輸移入合計四百三十六萬二千百八圓이니結局輸移出超過額이一百二十萬五千三百四十一圓이라그리고輸移出品으로는中國方面으로의穀物이激增되고輸移入品으로는綿織及毛織物이減少되얏스며其數字別은如左하다더라

輸移出品

米及正租	三、二八〇、〇五
小麥	一、三七、〇三
大豆	一、七、二一、八一
生牛及牛皮	一、八三、五四〇
人蔘及魚類	二八、六七八〇
黑鉛及石炭	二六八
木材及肥料	一四、五六二
其他諸品	一五九、五五二
合計	五、五六七、五二四

輸移入品

米正租及粟	一二九五四
麥粉及砂糖	五三五八
諸酒類	八五三六八
麻及畑草	一三六、九三
石油及爆發物	八六、三二七
綿絲及諸	一、六、七九、〇〇一
木綿織	一八、五三三
毛織及絹織物	二八、五八七
各種紙類	二七二五四
陶磁器	三七八、六七一
石炭(세멘트)及	三八、八二七
鐵物及諸機械類	二〇、六二八一
木材及以延類	二九八四六
小包郵便物	四三六二一八三
其他諸品	
合計	(仁川)

斧山面民陳情 六年制實施를

公立普通學校에對하야六學年制實施에關한法令이發布되얏스나此가實行되는곳은平安南道內에서오직平壤에在한幾個所의普通學校이오그外는全部가實施되지아니하얏다고그럼으로本道內何處를勿論하고普通學校六學年實施에關하야熱烈히運動하는中大同郡斧山面에在한斧山公立普通學校는設立된年數도長久할뿐안이라校舍와備品도充分하야六學年制를實施한다할지라도特別히多大한經費를要할것도無하다하야去八日同面有志朴善澄金明謙金寬孝黃海俊李昌柱等五人은斧山面林原面柴足面龍岳面等四個面의人民을代表하야平南道廳을訪問하고六學年制實施에關하야陳情하얏스며九日은大同郡守를訪問하고亦是陳情하얏다는대大同郡守는誠意가無한答辯을함으로同代表者는甚히憤慨하고中히回를待한다더라(平壤)

埠頭組員禁酒

龍岩浦埠頭組合에서는今般臨時總會에서禁酒를決議하얏는대其主旨는卽吾人의生活이日로窮縮되는此時에有害無益한飮酒로不少한金錢을消費함은民族이나且 [illegible]

平壤客月貿易

去十二月中平壤貿易額은輸移出七萬四千百九十七圓輸移入七十二萬百一圓合計七十九萬四千三百九十八圓인바此를前年同期의輸移出二千二萬一千六十三圓輸移入八十一萬七千七百四四圓合計百三萬八千八百六十七圓에比較하면輸移出에十四萬六千八百六十六圓輸移入에十七萬六千六百十一圓合計三十二萬三千四百六十三圓合計三十二萬三千四百六十九圓即二割强의減少를示하얏는바減少의原因은輸移出에在하야는昨年十二月에는米六萬九千圓砂糖六萬圓果實三萬五千圓等으로時勢가良好함에反하야本年은米의取引이僅히四千圓이오其他의貿易은殆히不振한故이오輸移入은一般의不況인바特히綿布綿絲가昨年보다激減되얏더라 (平壤)

煙草消費量 每戶平均六圓

博川郡管內嘉南、西面、嘉山、東四面內에서大正十一年中에販賣된專賣局卷煙販賣高를調査한則二萬六千餘圓에達하야平均每戶에六圓餘의比例에相當하더라 (平壤)

大東社株主總會

大邱府西城町一丁目株式會社大東社에서는來二十七日上午十一時에同社事務室內에서定期株主總會를開催하고左의事項을議決한다더라

一、大正十一年度決算貸借對照表及損益計算書承認의件

一、會社業務進行의件

一、其他事項 (大邱)

南原民大發起人

當地에서民立大學發起人을左와如히選擧하얏더라

申鉉奭李相一崔在浩金聖洙邊在益梁在洪 (南原)

群山文友會發起

當地鄭壽榮外三氏의發起로文友會를組織코저進行中인대同會가創立되면機關雜誌를發行하리라는바文化事業에一助가되리라더라(群山)

普校設立準備成

濟州島舊左面東金寧西金寧東福德泉松堂等各里人士는明年度에設置할普通學校位置를金寧里에두고자基地三千坪과現金六千圓을募集하고濟州島當局에交涉中인바基地三千坪과現金六千圓은東西兩金寧里에서募集한것인대舊左面人口及地勢上金寧里가中央이라더라 (城山)

積金島飮料水發見

全南麗水郡華井面積金島에는七百餘名의島民이居住하나從來飮料水가無하야同島西方을距한五海里處高興地方에서水船으로飮料水를運搬하야飮用하던바同面長林泰珍氏는昨年十一月頃에同島中央에飮料水出生處一個所를發見하고即時工事에着手進行中이더니水의成績이良好하야自今島民은飮料水의困難을免하얏다더라 (麗水)

湖銀木浦支店成績

湖南銀行木浦支店의昨年下半期業績을聞하면純益金이四千百八十餘圓이라더라 (木浦)

信川婦人夜學會

信川女子靑年會의主催로婦人夜學會를設立하고金孝順李永愛兩孃이每夜二時間式熱心敎授하는中인대目下會員이四十餘名에達한盛況이라더라 (信川)

新羅古蹟講習會

慶州公立普通學校同窓會主催로去六日부터每夜二時式普通學校內에서新羅古蹟講習會를開催하얏더라 (慶州)

● 少年部學藝會 錦山靑年會少年部에서는去一日下午七時부터學藝會를同會館에開한바 (一日) 은男子二日은女子) 任顯植氏司會下에唱歌、算術、珠算、演說、習字、書取、圖畵、地理問答、音樂等數十種이有하야學父兄等의賞讚을受하얏더라 (錦山)

● 朴參與官張宴 平安南道參與官朴相駿氏는去七日午後六時自宅에서朝鮮人新聞記者를招待하얏더라 (平壤)

● 奇特한 巡査 江華郡河帖面新風警官駐在所巡査部長加藤蒔氏는同面梨江里에在한橋梁을수繕自擔架設하얏다더라 (江華)

● 吉田會頭新年宴會 仁川商業會議所吉田會頭는市內各新聞關係者를招請하야去九日下午六時市內淺岡에서盛大한新年宴會가有하얏다더라 (仁川)

各地靑年團體

錦山靑年定期總會

錦山靑年會에서는去五日에第六回定期總會를同會館에開하고會長鄭相鎬氏의司會로各部事業報告가有한後任員補缺選擧와則改正等의有한바選擧된任員은如左

庶務部長李軸鎭 敎育部長金容鉉 經濟部長柳海燦 朝同部長金秦溶 財務部長金錫均 同部員金守仁 (錦山)

江華懿法靑年總會

客月三十一日午後八時江華懿法靑年會第五回定期總會를開하고任員을改選한바當選된任員은如左

會長辛孝承 副會長康興錫 宗敎部長趙班龍 文學部長趙龜元 社交部長徐鳳俊 運動部長李鳳信 會計金昌申 書記趙班龍 康興錫 (江華)

公州靑年任員決議

公州靑年修養會에서는本月六日下午七時該會館에서任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더라

一、民立大學發起人으로金閏燮柳靖鉉成曾永沈相久李容模五氏를選擧

二、夜學基金募集 同會主催인夜學講習所는現在通學生이百名에近한바此를더욱擴張하고其基礎를鞏固케하기爲하야基金을募集할일

三、講演會開催 學術講演會를月例會로開催할事

四、婦人會의組織을援助할事

五、修養會館은建築后計畫中이얏스나相當한建物이有할뿐아니라代金은當地金閏燮氏가支拂하기로되얏슴으로買收하자는決議를行하얏더라 (公州)

● 庚申親睦會總會 江華郡河岾面庚申親睦會에는今般同面蓬萊組合內에定期總會를開하고諸般意務를處決한後左와如히任員을選擧하얏더라

會長黃祐天 副會長鄭泰奎 總務李東承 幹事金寬植 資源徐光應 金賢植 (江華)

● 錦山靑年追悼會 錦山留學生親睦會員李輔現君의追悼會를去一日下午七時錦山靑年會館에서擧行 (錦山)

眞溫自働車部

主任 金學洙

眞池溫井은我半島에屈指하는療養地인故로遠近各地의人士가連絡不絶하옵는바交通上多少間不便으로外遺憾이바本人의自働車部를新購入하야當驛과溫井間에營業을開始한後邑과溫井間에來往諸位의게可及的迅速하오니倍前愛護하시옵기敬要

午前十一時	眞池驛發	溫井里發
午後二時半	同九時	
	同二時	
眞池溫井間	一圓六〇錢	
但眞池邑과溫井里道中인故로便利로乘客을取扱함		
平南線眞池驛前		

活動寫眞

● 當十一日(土曜)부터畫夜公開 ◇米國크리스티一社映畫 滑稽 活動狂 全二卷

◇米國유니버샬社映畫 探偵 闇中의音幻 全五卷

史劇 가나國王이되다하면?

◇米國바이타그래프社特作品 連續 鋼鐵兒 四卷上場 全八卷 第十四、十五編 最終編

神出鬼沒하는怪婦는誰何? 最後의勝利는누구에게? ◎懸賞抽籤期日來十五日◎ 驍將앤토니오氏의決死的活躍을보라!

松竹特約 朝鮮劇場 電本三六三〇番

● 月十一日부터新寫眞提供 第十二號 喜劇 名優生活 全一卷 喜劇 못된作亂 全二卷 화스트나쇼날映畫 人情劇 夜半의로ㅣ맨스 全六卷 第四回 大다ㅣ산 第七、八編四卷上場 全十五編 連續大活劇 第三回 紫의騎手 第五、六編四卷上場 全十五編 朝鮮大活劇 京城府授恩洞 國境 全拾卷 映畫

松竹特約 團成社 電話(本)九五九

金白銀金 德力本店出張所 京城明治町 電本一五七二番 振替京城二三四番

바이엘染料錠 朝鮮一手特約 京城本町 高木商店
今番白周衣보다도色周衣가大流行이올시다其筋에서도함니다그림에는獨逸바이엘會社製의染料錠이가장適當함니다一次使用하야其眞價를試하시요 各地雜貨店에서販賣함

날니는듯이팔니는實用防寒靴 맛드럽고미끄럽지안코튼々하고감도좃타 十文(八寸) 十文半(八寸三分) 十一文(八寸七分) 一足 前金金一圓五十錢 送料三十錢 京城黃金町三丁目 石井赤心堂雜貨部 電話本局二五二八番 振替京城七七四一番

理髮器具一式專門 注文次第卽時引換代金郵便으로送付하나이다 定價表有用이신時는報次第送呈하겟나이다 日本理髮器株式會社朝鮮總代理店 京城鍾路二丁目(靑年會館東便) 理髮具專門 長尾金寶堂 電話本局二一〇八番 振替京城一七〇一番

본인이본당소에서려관을하옵는바친구와일절설비를선명이하고대개친절위주하오나강호첨위는애고하야자시복망 平壤府敬賢里一四八 主崔大型 貫洞旅館

開院 三山醫院 湖西新興里寺町六七六 醫師金炳洙

蠶業學會 京城朝鮮蠶絲會 入會申込(次第) 六個月間修業 [illegible]

입절 매독 ●困難한人은卽時本商會에來照하시와輕治 ●地方에서는病狀을明細히하야 ●治療一週 梅毒三週、五週、四週、五週 京城黃金町三丁目 有田드라구商會 電話本局二六六一 振替京城一一一九番

東方文華大學 講話纂刊行 講師東亞第一流 碩學大家數十名 特待生은東京本大學本部에二個年間無料寄宿舍가잇음
特待生 甲一名(千二百圓) 乙二名(八百圓) 丙三名(五百圓)
□聞하라 現代最高級人材養成의好機關大學卒業을坐而可得이오 □思하라 終日不食하고 終夜不寢而思之하나 無益이라不如學也로다 □感하라 滄海桑田의 將來秋晚에光陰이 忽하야爲我不待로다
□覺하라 講學未暇나亦不學이나 寸陰을可惜이라 □趣하라 中學을丁하고大學에赴치못하야 中途에彷徨하는學生 諸君이여 □來하라 諸般事情에拘束되야遠方에負笈치 못하고窮巷에悲嘆하는靑年諸君이여
學長 文學博士法學博士 澤柳政太郎
哲學 現代의哲學(和文) 朝鮮儒學史(諺漢) 東洋哲學史(和文) 東洋哲學史(諺漢) 宗敎 宗敎哲學(和文) 朝鮮宗敎史(諺漢) 朝鮮의佛敎(和文) 倫理學 東洋의倫理(諺漢) 倫理學(和文) 敎育 敎育思潮史(和文) 文藝 朝鮮의漢文學(諺漢) 文藝思潮史(和文) 詩文講話(諺漢) 史學 東西文明史論(和文) 朝鮮史(諺漢) 政治學 政治思想史(和文) 現代政治運動의特質(和文) 法學 法學大要(和文) 東洋의法制(諺漢) 經濟學及社會學 國民經濟學(和文) 社會學一斑(和文) 朝鮮의社會問題(和文) 科學 近世科學(和文) 相對性原理(和文) 生物學 生物進化論(和文) 遺傳論(和文) 一般營養學(和文) 保健衛生學(和漢) 天文 天文學(和文) 地文 人生地理學(和文)
科外講話 △資本主義와社會主義△朝鮮의農業과農政問題△商業과海外貿易△朝鮮의工業과發明△經濟欲과進步와生存權
○入學金三圓○月謝金二圓○修業年限二ヶ年○學年開始는每年三月○講義錄은每月一回發送
△郵稅二錢을封入하야規則書를請求하시오△入學金及月謝金은添付申込하시면入學證과帽章을送付함△道廳所在에는大學支部를設置하고地方總理가統轄함
部員學課의외로 硏究報刊行 講演會 支部學會 討論會 書館設置 巡回圖 親睦硏究
申込所 東京神田駿河台袋町 東方文華大學本部 朝鮮總支部 京城樂園洞二丁目八五 電話本局弐四番

子女妊娠을保證 生殖機能을增進 命의母 宮强壯靈藥 자궁강장령약 五大博士證明 저白帶下는妊娠의大敵 女子의靈藥 白帶下를全治하며 貧血을防止하며 生殖機能을增進식히는良藥! 京城府樂園洞二八六 李明淑氏 黃海道信川邑內 金淑子氏 命의母 見孩를姙娠하야보시렵니가? 命의母 生殖器의機能을完全케합니가? 定價 金二十五錢 金五十錢 金一圓 金二圓 金三圓 金五圓 本店 東京市京橋區新榮町四丁目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支店 大阪市北區本庄中野町四五七 振替大阪三一八〇番

ClibPDF - www.fastio.com